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2 pp. 529-535, 2012

http://dx.doi.org/10.5762/KAIS.2012.13.2.529

데이트 쇼 프로그램의 구성형식과 텍스트 분석
-SBS 〈짝〉 노처녀 노총각 특집물을 중심으로-

함현[1*]
[1]청운대학교 방송 · 예술대학 방송영상학과

The Analysis of Date Show Program: Its Focus on SBS Special Episode of <Partner>

Hyun Hahm[1*]
[1]**Dept. of Broadcasting & Digital Media,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데이트 쇼 프로그램인 SBS의 <짝>의 텍스트 구성형식에 나타나고 있는 텔레비전 장르의 특성을 통해 텔레비전 장르의 혼종적(hybrid) 포맷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혼종적 포맷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리얼리티를 강조하여 수용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데이트 쇼 프로그램은 수용자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출연자와의 동일시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the couple formation of date show program SBS <Partner> as a hybrid genre. The characteristic of hybrid program emergent popular formation of television culture in our society, as well as encountered by audiences. It also implies that the visual culture transforms the popular elements of episode of television culture as a reality show program refer to central field of media industries. One final thing that date show program has been rapidly changed in terms of many different methods of format, as well as continued process of the date show program is an opportunity to raise the daily lives of fueling

Key Words : Date Show Program, Open Competition, Reality, Media Culture

1. 서론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를 생산하고, 소비되어지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미디어 문화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문화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본질적인 또 다른 해석의 접근 방식은 매스미디어의 이용과 충족 이론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텔레비전 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구성과 형식의 변화된 추이를 살펴보면, 다변화된 수용자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충족시키기고, 균형적인 접근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 특히 텔레비전 장르와 장르간의 혼종적(hybrid) 구성형식에 따른 새로운 구성형식의 시도는 수용자에게 또 다른 메타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혼종적 포맷의 프로그램은 현존하는 인물과 실재 사건에 관한 이야기 구조의 형식과 더불어 가장 눈에 띄는 시각과 성격묘사의 통해 이야기 구조를 전달하고 있다[1].

그중에서도 리얼리티의 장르와 접목된 다양한 장르의 혼종적 프로그램의 구성 형식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정착되어, 수용자에게 끊임없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리얼리티 형식이 가미된 경쟁 구도의 텍스트 구성형식은 또 다른 인포테인먼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11년 청운대학교 학술지원연구비의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 함 현(poparts@chungwoon.ac.kr)
접수일 11년 12월 22일 수정일 (1차 12년 01월 11일, 2차 12년 02월 09일) 게재확정일 12년 02월 10일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짝짓기 프로그램인 SBS의 <짝>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혼종적 구성 형식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레마스의 행동 모델 분석을 적용해 주체와 대상, 발신자와 수신자, 협조자와 반대자들간의 의미생성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통합체 분석과 계열체 분석을 통해 <짝>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궁긍적으로는 기호학적 틀 안에서 프로그램 분석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텔레비전 문화

텔레비전의 기표와 기의는 하나의 기호로 표출된다. 기표와 기의의 의미관계에서 표출된 기호는 수용자에게 사회·문화적 텍스트로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담론을 끊임없이 창발하고 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우리사회의 미디어 담론의 특징은 일상성의 문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텔레비전이 우리의 일상성의 문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먼저 문화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는 상황에서 의미를 되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유리 로트만(Lotman, Yuri M)에 의하면. 문화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같은 시대라도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의미론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문화를 결코 보편적인 다수가 아니라 언제나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된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2]. 또한 문화는 하나의 과정이지, 고정적인 관행이나 해석의 범주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3].

결국 텔레비전이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등장한 매체에 의해 수용자가 거대집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중문화가 생성하고 자리매김을 하면서 그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텔레비전 문화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전달되는 의미작용이 보편적 다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로트만이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한 방식으로 기호화되고 소비되어지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특정 계층을 위한 상징적 문화현상이 될 수도 있다.

2.2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기호와 상호작용의 의미적 해석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하나의 기호로서 상품의 가치를 지녔다. 대중문화의 대표성으로 부각되고 있는 텔레비전은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이 실질적 또는 형식적으로 기호화되고 소비되어지는 과정은 약호(code)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수용자에게 강력한 믿음의 상징체계를 구현하기도 한다. 또한 텔레비전을 일상생활에 있어,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당연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4] 즉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우리의 일상성의 문화에 매개된 매체로서, 혹은 현실적으로 재구성된 기호를 끊임없이 표출되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수용자에게 기표와 기의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의미작용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지시작용의 개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수용자를 의미론적으로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거대집단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적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점이다. .즉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의 변화를 통해 시도되고 있는 장르간의 상호매체성을 활용한 장르의 혼종적(hybrid) 형식은 또 다른 기호작용을 통해 그 의미의 전달이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성으로 표출되고 있다.

2.3 텔레비전 장르의 상호매체성

텔레비전 장르의 특성으로 상호매체간의 교환성이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텔레비전 장르간의 혼종적 형식의 특성은 장르와 장르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의 경우를 살펴보면, 실제의 현실과 매개된 현실의 구성을 통해서 수용자에게 모방으로 재구성된 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출연자의 실제 상황과 매개된 현실적 가상 상황이라는 이중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에게 자연스럽게 현실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리얼리티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의 가속화 현상을 부추기기도 한다.

리얼리티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개념의 정의에서부터 출발된다. 킬본(Kilbon)은 '실제 삶', '드라마적 재구성'의 특징을 지적하고 있고[5], 힐(Hill)은 사회적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리얼리티가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다큐멘터리와 드라마의 중간 영역에서 발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6]. 또한 국내 리얼리티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이종수는 실제 사건, 사실, 인물을 바탕으로 극화하거나 버라이어티 오락 형식으로 방영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해 논하고 있고[7], 김수정은 '실제 인물(real people)'과 대본 없는(non-script)행위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기술하면서, 자기통치(self-government)의 개념을 적용하여 자기를 대상화하여 살펴보고, 진단하고, 통제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구분하고 있다[8]. 그러나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현실 '구성'과 '성찰'의 이중적 서사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미흡함도 지적되고 있다[9].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텔레비전의 리얼리티를 소재로 한 구비적 양식의 상호매체적 특징은, 이야기는 허구적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관련되는 방식은 그 이야기를 실제인 것처럼 말한다는 점이다[10]. 그러나 자연스럽거나 인위적으로 생산된 양식의 이중적 구조를 감안할 때, 수용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나 의미해석의 범위도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텔레비전 장르의 리얼리티의 상호매체성의 특징은 비평가들이 지적한대로 시청자들에게 '소비지향적이고 무비판적인' 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시청자 개개인을 자신의 역할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하나의 주체에 불과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다[11].

2.4 짝짓기 프로그램의 등장과 문화적 현상의 의미

텔레비전에 등장한 짝짓기 프로그램(Love On-Air)은 청춘남녀의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형식과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데이트 쇼와 게임쇼의 형식을 혼합한 구성으로, 실재의 인물(real people)이 등장하여 대중의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현실의 상황이 매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수용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수용자에게 출연자와의 동일시를 부추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짝짓기 프로그램, 즉 데이트 형식의 프로그램은 수용자에게 매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실지각적으로 전달되는 발화행위의 형태를 갖고 있다

텔레비전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는 우리사회의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즉 매체를 통해서 매개된 현실의 경험을 증진시키고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상에 대해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시각적 이미는 한 사회의 구조, 상화, 위치와 기능들, 태도와 역할들, 개인의 행동과 반작용, 즉 간단히 말해서 이 사회의 형식과 내용을 보여준다[12].

짝짓기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통해서 표출되는 발화행위는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텔레비전의 시각적 이미지의 구성이 '재구성된 현실'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실제적 상황, 일상생활로 상관관계가 이어지고 있다.결국 텔레비전에서 방영되고 있는 짝짓기 프로그램의 다양한 발전적 계기는 수용자의 개인적 삶과 모습이 미디어적 경험으로 대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3. 〈짝〉의 텍스트 분석

3.1 통합체 분석: 이야기 전개구성 및 연결방식

SBS <짝>은 리얼리티 형식의 데이트 쇼 프로그램으로, 본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기획 의도는 "나도 짝을 찾고 싶다"라는 수용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것이다. 누가 나의 짝이 되는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이며, 지금 현재 짝 없는 남녀가 짝을 찾아가는 실제 만남과정을 통해 결국 한국인의 사랑을 살펴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괄목할 만한 특징 중의 하나는 <애정촌>이라는 특정장소에서 12명의 남녀가 1주일동안 함께 지내며 자신의 이상형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구애의 상황이 펼쳐진다는 점이다.

[표 1] 이야기 전개구성의 통합체 분석 결과
[Table 1] Narrative analysis of the configuration tonghapche

<애정촌>으로 입성하는 남성·여성 출연자
▼
첫인상 선택 및 탐색의 시간(마음속 선택)
▼
첫인상 호감의 표시(여성 선태권 부여)
▼
첫인상 호감의 표시(남성 선택권 부여)
▼
자기소개의 날
▼
이상형 선택(여성/ 데이트우선권 /도시락 데이트)
▼
이상형 선택(남성 /데이트우선권 /도시락데이트)
▼
데이트 및 대화의 시간
▼
최종 결정 및 선택

3.2 계열체 분석: 등장인물의 분석

이 프로그램은 노처녀와 노총각을 대상으로 한 특집구성물이다. 노총각과 노처녀의 연령에 대한 기준, 즉 결혼 적령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성인을 기준으로 기혼자와 미혼자에 대한 평의는 이중성으로 표출되고 있다.

[표 2] 결혼에 대한 2층위의 평가
[Table 2] Married for two layers of evaluation

정상	기혼 남성, 여성
비정상	미혼 남성, 여성

표 2 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사회에서 결혼 적령기를 넘긴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노처녀,노총각으로 명명되는 특징은 정상과 비정상으로 규명되고 있으며 일반화된 현상과도 같다. 이 프로그램에는 결혼 적령기를 놓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처녀 노총각 특집물로 구성된 점을 살펴보더라도 이해가 충분하다.

[표 3] 남자 출연자들의 특징[13]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male performers

성별	특징
남자1호	삼성생명 재무 설계사로 40년 동안 제주도를 떠난 적이 없는 남자
남자2호	가난 때문에 파혼의 아픔을 겪었던 입시학원 대표
남자3호	연상의 여자가 이상형인 41세의 뮤직비디오 감독 겸 프로덕션 대표
남자4호	유명 프로야구 선수출신으로 올해 마흔이 된 남자
남자5호	명문대 출신으로 현재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45세의 남자
남자6호	2남 5녀 중 장남으로 결혼이 시급한 마흔 한 살의 입시학원 강사
남자7호	이젠 아내가 차려주는 밥이 먹고 싶은 38세의 요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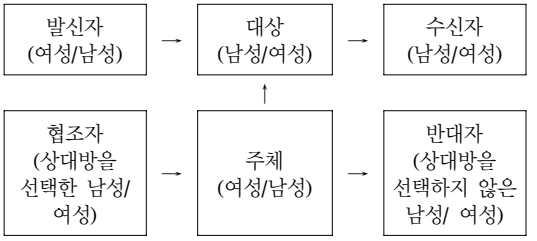
노처녀 노총각 특집극에 출연한 출연진은 평균 40세를 넘긴 사람들로, 표 3, 4는 출연자들의 프로필이다. 또한 남성 출연자와 여성 출연자들의 공통적인 상황은 현재 노처녀와 노총각이라는 한국사회의 편견에 시달리고 있고, 부모님에 대한 생각, 학력, 집안, 성장배경 등의 심리적 갈등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4] 여자 출연자들의 특징
[Table 4]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performers

성별	특징
여자1호	100번도 넘는 연애를 해본 38세의 출판사 대표
여자2호	학생들의 지지로 애정촌을 찾은 고등학교 영어 교사
여자3호	결혼을 간절히 바라는 칠순의 노모를 둔 시나리오 작가
여자4호	일에만 몰두해왔던 마흔 넷의 광고회사 대표
여자5호	단국대 간호학과 박사 과정 중으로 노인센터를 운영하는 여자
여자6,7호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41세의 쌍둥이 자매

3.3 행동자 모델 분석

그레마스의 행동자 모델은 주체와 대상, 발신자와 수신자, 보조자와 반대자의 대립 쌍으로 행동자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 각각의 대립쌍은 욕망, 전달, 능력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그림 1] "짝"의 행동자 모델
[Fig. 1] The model behavior of "partner"

3.3.1 주체와 대상

<짝>의 주체와 대상은 여성과 남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남성이 주체인 경우 여성이 대상인 동시에 수신자가 되고, 여성이 주체인 경우에 대상과 수신자가 동시에 남성이 된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노처녀와 노총각은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기 위한 욕망의 관계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노처녀, 노총각 각각의 인물들은 호감이 가는 이상형을 선택하고, 자신을 소개한다. 첫인상에 대한 선택은 데이트 시간과 연결되며, 점진적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이상형과 부합되는지를 가늠하게 된다.

3.3.2 발신자와 수신자

이 프로그램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는 서로의 관심과 표현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주체의 대상은 자신의 욕망, 즉 이상형을 찾기 위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인 동시에 수신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는 발신자는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기회가 주어지고, 동시에 수신자 역시 남자와 여자가 공통적으로 놓이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면 수신자, 즉 대상은 한명이더라도 발신자가 다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다수가 동시에 데이트를 즐기기는 하지만, 발신자의 어느 한 인물은 방해자로서의 역할이 전담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자 1호와 남자 4호 간에 또 다른 주체의 개입(여자 5호)으로 두 인물의 갈등적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남자 4호가 여자 5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여자 1호와 남자 4호의 갈등적 요소가 발생한다. 또한 여자 7호는 남자 6호에 대한 언행적 표현에 대한 배려심 부족으로 인한 갈등적 요소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일방적 선택에 의한 관계는 성립되었지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통합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남자 1호인 경우, 첫인상에 대한 여자 3호를 본인이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번도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형성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로 혼자서 생활하면서 선택의 기회가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탈락하게 된다.

3.3.3 협조자와 반대자

이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이상형에 대한 관심의 표출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심의 대상에게 수박을 건네주거나, 도시락 데이트를 신청하거나, 외출을 통한 데이트 상황이 진행된다. 그러나 남자 1호는 처음부터 홀로 <애정촌>에서 생활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데이트 우선권이 걸린 시합에서도 대부분의 관계는 협조자, 즉 데이트를 승낙함으로써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남자7호와 여자 2호, 남자5호와 여자 5호의 바이크 데이트, 남자4호와 여자1호의 오픈카 데이트, 남자6호와 여자 7호와 해변의 데이트 등이다.

그러나 남자5호와 여자 2호, 남자 3호와 여자 6호의 묘한 심리적 갈등의 관계가 표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자 5호의 바이크 취미에 대한 여자 2호의 반감의 표현 후, 남자 7호와 바이크 데이트에 대한 남자 5호의 반감적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남자 3호의 첫 번째 이상형인 여자 4호에서 여자 6로 전환된 것에 대한 마음의 확인, 남자 2호와 여자 3호의 관계에서 표출된 남자 2호의 다혈질적인 성격에 대한 반응, 남자 6호와 여자 7호의 관계에서 남자 6호의 언행적 태도에 대한 상황들이 이상형에 대한 호감(협조자)에서 비호감(반대자)로 전환되기도 한다.

결국, 이 프로그램의 협조자와 반대자가 극명하게 표출되는 상황은 최종적인 선택의 과정에서 “짝”이 성립되면 협조자가 되고, “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대자가 되는 것이 이항대립적으로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3.4 기호학적 4각형 모델 분석

남자1호에서 7호, 여자 1호에서 7호까지 “짝”을 선택하기 전에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데이트를 즐기는 과정에서 표출된 마음과 생각과는 무관하게, 최종적인 결정의 순간에서는 3커플의 “짝”이 성사되었다.

1차 관문인 여성이 남성에게 이상형의 마음을 표현한 과정과 남성이 여성에게 이상형을 표현한 마음의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2와 그림3과 같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첫인상에 대한 선택과 기준은 그들이 <애정촌>에서 생활하면서 변화하게 되고, 최종적인 선택의 과정에서는 이변이 발생하게 된다. 즉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짝”을 얻기 위한 데이트, 프로포즈의 상황이 기호학적 사각형 모델의 분석결과 반대관계, 모순관계, 보완·내포 관계로 나타난다.

<애정촌>에서 생활하면서 친숙해진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발전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상황에서 수용자에게 비춰진 커플의 탄생의 기대감이 상반되게 표출된 상황은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과 비선택의 결정권은 예측하기 힘든 결과로 나타난다.

주체(여성)		대상(남성)
여자1호	→	남자4호
여자2호	→	남자5호
여자3호	→	남자4호
여자4호	→	남자5호
여자5호	→	남자5호
여자6호	→	남자6호
여자7호	→	남자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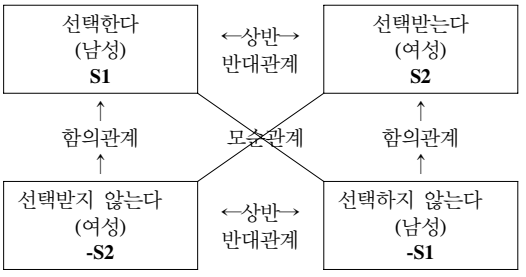
[그림 2] 첫인상에 대한 여성의 호감도
[Fig. 2] Favorable impression on the women

주체(남성)		대상(여성)
남자1호	→	여자3호
남자2호	→	여자2호
남자3호	→	여자4호
남자4호	→	여자1호
남자5호	→	여자5호
남자6호	→	여자7호
남자7호	→	여자2호

[그림 3] 첫인상에 대한 남성의 호감도
[Fig. 3] Favorable impression on the men

S1과 S2의 반대관계는 남성이 여성을 선택하고 여성이 선택받는 관계가 된다. S1과 S2는 모순관계로 남성이 여성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반대의 관계이며, S2와 -S2의 관계 선택을 받거나 받지 않는 관계이다. S1과

-S2의 관계는보완 및 내포의 관계로 남성이 여성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S2와 -S2의 관계는 여성이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의 마음이 표출된다.



[그림 4] "짝"의 최종선택의 기호학적 사각형 분석
[Fig. 4] final selection of semiotic square of <partner>

이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짝"의 커플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그림 3에서 표출되었던 첫인상에 대한 선호도와도 일치하는 커플의 탄생과 불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다시말하면, 남자와 여성의 첫인상에 따른 호감도가 일치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호감을 갖고 있더라도 최종적인 상황에서는 이항대립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 결론

본 논문은 텔레비전 장르의 혼종적 포맷에서 나타나고 있는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텔레비전 문화의 의미적 해석에 대한 상호매체성이 갖고 있는 특징은 수용자에게 관찰자적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리얼리티의 실제적 상황을 극대화하고 있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데이트 쇼 프로그램인 SBS의 <짝>은 전통적인 짝짓기 프로그램에 비해 장르의 혼종적 구성 형식과 리얼리티를 강조한 형식을 갖고 있다. 시네마 베리테(Cinema Verite)의 관찰자적 양식과 리얼리티를 강조한 이야기의 서사구조는 수용자에게 본인의 이야기로 동일화, 대상화하게 하고, 개인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에 대한 모순된 상황을 되짚어 보게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남성과 여성 출연자에 대한 계열체와 통합체 분석의 결과에는 공통점이 있다. 노처녀와 노총각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레마스의 행동 모델 분석을 통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주체가 되어 대상에 대한 관찰자적 양식을 통해 서로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그레마스의 행동 모델 분석의 결과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주체가 되어 대상을 관찰하고 선택하는 결과에 따른 선택이 일치하는 관계는 협조자가 되고, 선택의 불일치는 반대자의 이분법적인 대립관계가 성립된다. 최종적인 선택의 기호학적 사각형 분석의 결과는 반대관계(S1, S2), 모순관계(S1, -S1), 그리고 보완·내포관계(S1, -S2)의 분석 결과로 도출된다.

이러한 결과의 도출은 선택과 비선택의 기준이 출연자들의 주관적 생각과 판단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행동자 모델의 분석 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남성과 여성의 선택 기준이 일치하거나, 또는 이항대립적인 결과는 개인의 신념, 가치관, 생활방식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노처녀 노총각에 대한 한국 사회의 구조화된 의식과 관습은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화된 집단적 아비튀스 현상은 되짚어 보게 한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리얼리티를 소재로 한 혼종적 프로그램 형식인 데이트 쇼 프로그램 SBS의 <짝>을 텍스트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비록 데이트 쇼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장르이지만, 앞선 프로그램의 구성형식을 통한 새로운 재매게 현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텔레비전 장르의 재매게는 장르간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생산 과정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맞선 형식의 짝짓기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리얼리티의 구성형식과 관찰자적 양식을 겸비한 텔레비전의 혼종적 장르의 발전은 수용자와의 밀접한 상호관계성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향후, 리얼리티를 소재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급진적인 소재와 내용에 대한 서사구조 및 내러티브의 분석을 기대한다.

References

[1] Hill, Annette, 『Reality TV: Audience and Popular Factual Television』,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London & New York, p.39, 2005.
[2] Lotman, Yuri M, 『A Semiotic Theory of Culture』, Moonye Publishing, pp. 62-63, 2008.
[3] Sturken, Marita & Cartwright, Lisa, "Introduction to Practices of Looking", 『Visual Culture: Critical Concepts in Media and Cultural Studies』,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London & New York, p.29, 2006.
[4] Weimann, Gabriel, 『Modern Media and the Reconstruction of Reality』,Communication Books, p.5, 2003.
[5] Kim, Sujeong, "The cultural Politics of Self-Government

in Global Reality Game Shows: in the case of <Project Runway> and <America's Next Top Model>",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4-6, p.15, 2010.
[6] Hill, Above the book, p.2
[7] Kim, Above the paper, p.1～18.
[8] Lee, Jong-Su 『TV Raelity: Representing Reality in Television News, Documentary, Reality Show』, Hamnare, p.244, 2004.
[9] Choi, Eun-Kyoung & Kim, Seung-Hyun, "The Two Face of Reality TV: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of Ideological Discourse of Love and Marriage on Reality Program <Gold Miss is Coming>",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4-3, p.178, 2010,
[10] Fiske, John & Hartley, John, 『Reading Television』, Hyundai Mihaksa, p.176, 1994
[11] Above the book, p.176.
[12] Deleuze, Gilles, 『Cinema II:L'image-Temps』 Visions and Language Publishing Company, p.442, 2005.
[13](http://tv.sbs.co.kr/jjak/?log_sched=tv)

함 현(Hyun Hahm) **[종신회원]**

- 1997년 7월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Radio & TV Broadcasting(예술학사)
- 2001년 2월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언론학석사)
- 2008년 2월 : 고려대학교 영상문화학과 (박사수료)
- 2002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방송영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방송영상, 영상커뮤니케이션, 영상문화